

순정이

연중 제 4 주일

제 1 독서 : 신명 18, 15-20

제 2 독서 : 1고린 7, 32-35

복 음 : 마르 1, 21-28

"나자렛 예수님,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마르 1, 24)

강론

권위있는

새로운 가르침

김 교 동 신부/덕진 천주교회

예수께서는 오늘 회당에 가셔서 범상치 않은 권위있는 가르침을 통하여 사람들을 감동케 합니다. 이어 악령을 쫓아내시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경이의 눈으로 바라다봅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권위에 가득차게 하고 경이의 도가니로 몰고 가는가? 그것은 당시 지도자들이 법과 규정의 목적과 정신을 도외시하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얹어매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여 이권을 취했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모습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완벽하게 수행하시고, 그 소명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은 생명을 내건 투쟁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군림하는 권위가 아닌 봉사로서 섬기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오로지 당신 스스로에게서 우러나오는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명

욕망과 죄악이 — 낳은 — 어둠 —

정 인 섭(안드레아)

달마다 봉급을 받으면 우선 나가야 할 돈들을 제하게 된다. 고등학교 교사인 내가 보통 받는 봉급액은 65만 원 정도인데, 나갈 돈은 30만 원 안팎이다. 남은 액수에서 10만 원을 저축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러저럭 150만 원이나 통장에 모아진 것이 이번 겨울에 어머니 입원비로 다 나갔다.

나는 주일헌금을 1천 원 이상을 해본 일이 없다. 그래도 특별한 피정이나 수련회 때 파견미사 봉헌금은 1만 원은 해야 마음이 푸근하다. 특별한 지향으로 미사를 신청하면서 예물로 1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지내왔다.

구약성서에 나타난 옛 사람들의 봉헌은 십일조가 법으로 지켜졌다. 그래서 교무금은 30/1이나 20/1이 적당하다고 하는데 나는 30/1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교무금이나 주일헌금 미사에 물을 먹지로 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액수가 적은 것은 아닐까 싶어서 문제일 수는 있어도...

몇 년 전 서울에서 잠시 지낼 때 매일미사 때면 빠짐없이 셋

예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누가 나를 단죄하겠는가?

1. 도마 위의 사람들

어느 따스한 봄날 라일락 향기 흩날리는 교정의 벤치에 두 신입 신학생이 다정히 마주 앉아 얘기 꽃을 피우고 있었다. 애기의 화제가 당연히 새로이 만나 한금우가 된 형제들에 관한 것. 차근차근히 화제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킨다. "영철이 그 녀석 허우대는 멀쩡한게 속이 없어, '키 크고 속 못 차린다'는 속담이 꼭 맞지?" "그래! 철식이 그 녀석은 팔버릇 되게 고약하더라. 가정 교육이 형편없었나 봐." "응 그래, 민수는 한술 더 뜨지. 꼭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처럼..." 차례로 반 금우들이 도마 위에 올려져 난도질을 당한다. 한참을 그리고 나니 더 이상 도마 위에 올려 놓을 사람이 없다. 마지막 남은 두 사람을 제외하곤 말이다. 그 두 사람이란 누구일까? 둘은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서로의 눈치를 살핀다. 녀는? 그리고 나는? 남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둘의 얼굴은 동시에 땅거미처럼 어두워졌다.

2. 그 죄는 곧 자신의 죄가 아닌가?

왜 사람들은 사람을 단죄할까? 왜 그토록 난도질을 해야 속이 후련해질까? 왜 그토록 인정해주고 칭찬해주



4. 전혀 새로운 삶의 근거

이러한 인간에게 전혀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기쁜

사순절이란?

부활을 준비하기 위하여 40일 동안 통회와 보속으로 재를 잘 지키는 시기를 말한다.

* 단식과 금육이란?

• 단식: 낮 한 끼만 충분히 식사하고 아침 저녁은 요기 정도하는 것. 재의 수요일과 예수 수난 금요일에 지킴(만 14세부터~만 60세까지).

• 금육: 육식을 금하는 것(우유, 계란, 기름 등으로 된 양념은 상관없음). 재의 수요일과 매주 금요일에 지킴(만 14세부터).

* 사순절과 카니발의 관계

카니발이란 사순절 동안 그리스도를 위하여 금욕하며 참회해야 하므로 그 이전에 고기를 먹고 즐기던 데에서 시작된 것. 사순절 직전 3일~일주일간 즐겼었다. 그 기원은 로마 시대의 동지제로써 이교적인 제사이며 초기 카니발은 주의 공현 대축일부터 사순절 전날까지였으나 역대 교황들에 의해 재의 수요일 직전 6일~7일로 한정시켰다. 이것이 요즘 대학가의 축제로 남아 있다.

* 사순절과 신앙생활

잔잔한 사랑의 실천

최 해 관(안드레아) / 무주 성당 설천공소 회장

“은총의 선물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직책은 여러 가지이지만 우리가 섬기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결과는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1고린 12, 4-6).

하느님은 인간에게 각자에 맞는 그릇을 주셨다. 큰 일을 통해서, 작은 일을 통해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셨다. 우리 주위에는 드러나는 봉사도 많지만 보이지 않는 봉사도 많이 있는데 무주 성당 설천공소 회장이며 대우병원장인 최해관 회장이 바로 잔잔한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게 봉사하는 분이다.

그는 결혼으로 인해 74년에 영세를 했으며 도시의 병원을 떠나 하고 이곳 시골 병원에서 의료 봉사를 시작하면서 설천공소 회



장직도 맡게 되었다. 그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대학 2년 때 무료 진료 봉사를 나갔다가 끼니도 못 먹고 앓고 있는 이들을 만난 후에 벽촌에서 봉사하는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다.

78년 10월 대우병원 원장 의사로 일하게 되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를 몰랐었다. 그런데 차츰 사제들의 생활을 보면서 가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가난한 이를 도와주는 자세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나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그는 자문하게 되었다. 부끄럽기도

했고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는 자신 안에 박혀 있는 이기심, 동정심만 있었지 배필지를 못했던 모습을 보면서 통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후부터 그의 신앙은 더 깊어졌고 성서 공부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 치료비가 없어 찢찢대는 이들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큰 일은 못 하지만 주위에서 작은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도움을 베풀다



보니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성서 말씀이 마음 깊이 와 닿았다. 또한 그는 참된 사랑의 의미를 조금씩 배우고 흉내낼 수 있게 된 것에,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 감사드리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사랑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렸다. 그의 희망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다. 교회 안팎에서 봉사하는 그는 전북대상 봉사부문을 받기도 했다.

그는 이제 그의 잔잔한 삶 속에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가면서 기쁘게 살고 있지만 공소의 황폐화에 많은 염려를 하고 있다. ‘신자 재교육을 위한 자료, 전교사를 양성하여 농촌에 파견하는 일이 시급한 문제’라고 교회에 호소하는 그의 모습이 자못 진지하기만 했다.

요십이 (913) 김병오



장계 성당

구교우가 많고
화목한 본당

교구소식

1. 사제 평의회: 2월 12일(화) 교구청.
2. 초등부 교리교사 동계 연수: 2월 19일~21일 무주 자연학습원.
3. 전북일보 천주교 고정란(7면) '성당의 종소리' 안내: 4일(월) - 무자비한 교회(정인섭 선생), 6일(수) - 생명의 예술(최용준

십자가의 사람

문규현 신부님께

김 삼 순(멜라니아)/연지동 성당

+ 하얀 눈이 몹시도 쏟아지던 어느 해 겨울 저의 장남이 수도원 담장 속으로 꼭꼭 숨어 버렸습니다. 두 불을 타고 내리는 뜨거운 눈물의 의미를 알 수는 없었지만 저는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리내 성지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게제마니 동산을 오르다 보니 그 중간쯤에 예수님의 성시를 품에 안으신 성모님을 모셔 놓은 경당이 있었습니다. 성모님 앞에 무릎 꿇고 처음으로 십자가의 길 제4차 길에서 성모님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고통과 제13차 예수님의 성시를 품에 안으신 성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주님께서 내리신 수도복에 한점 티끌도 남기지 말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수도자 되길 열심히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수도복을 훌훌 벗어 던지고 엄마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참다운 '효'의 길인지요? 이론적으로는 제가 주님의 충만한 은총중에 서 있음을 잘 알

면서도 때론 인간일 수밖에 없었음이 죄스러워서 하루에도 수없이 '내 탓이요'를 뇌까리면서 용서를 청해보기도 합니다.

신부님! 어쩌다 서울 나들이를 하게 되면 삶의 아비규환이 온몸을 조여옵니다. 데모 군중, 체루탄가스, 육교, 지하도 계단 위에 일그러진 모습들, 어둡기만 하는 신문 기사들. 웬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오면서 차라리 삶에 눈 돌리고 외면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은 어느 새 주님을 향해 출달을질치고 있습니다. 주님! 제 십자가가 무겁다 불평하지 않을테니 세상의 고통을 어루만져주시옵소서.

신부님! 이 혼돈의 밀림지대에서 우리만 편하자고 소옥 빠져 나온다면 너무 암체스럽겠지요? 고통중에 있는 이웃을 위해 무거운 십자가를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다 잃더라도 건강만은 꼭 잃지 마시구요. 안녕히 계십시오.

주 여

조 삼 순(글라라)
/시기동 성당

주님!

당신 앞에 한발한발 다가가기가 두려웠습니다.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너무도 가혹한 벌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생명력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모진 삶의 몸부림을 쳐야 했습니다. 갖은 고통과 시련 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때로는 원망과 저주도

그러나 당신은 가련하고 나약한 한 인간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용기를 주셨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가능성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

당신의 위대한 사랑 앞에 어느 누가 대항하겠습니까? 그저 당신 앞에 힘없고 무능한 인간인 것을....

알고 봅시다



엄마와 어린이를 위한 영화 상영

‘보 석 상’

대상: 엄마, 아빠, 일반

일시: 2월 18일(월) 오후2시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요한 바오로 2세의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마르첼리노’

대상: 어린이, 엄마

일시: 2월 25일(월) 오후2시

장소: 가톨릭센터 3층 강당.

스페인 산촌의 수도원에 버려진 아이 마르첼리노. 말썽만 피우는 개구장이가 빵과 포도주의 귀여운 천사가 된다.

* 사순시기에 권해드리는 책

주의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진량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주 목 성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 송 남

*** 부임하신 주임신부님 박진량(라우렌시오) 보좌 신부님 주 목 성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환영합니다.**

1. 예비자 교리 안내 : ① 일반-일요일 공식미사 후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 ② 학생-일요일 전8시. 2. 전주 M. E 33차 높은 부부를 위한 주말 감동 : 8월-10월. 3. 사목회 상임위원회 : 7월 8일 주8시 사제관. 4. 병자 봉성제 : 7월(환자가 있으신 가정은 사무실에 접수). 5. 교리교사 모집 : ~17일까지 면접-17일 주 8시. 6. 성심회 단합대회 : 6일 어머니 미사 후. ⑦ 성시간-7일, 후7시30분. 7. 모임 : ① 울드레아-3일 후8시 ② 성가대 월례회-6일 어머니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719,690원 □ 교무금 : 546,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 일 균

1. 사목회 : 오늘 저녁미사 후. 2. 울드레아 : 5일 저녁미사 후. 3. 밀알회 : 6일 오후6:30. 4. 성체감동 : 7일 저녁미사 후. 5. 제대회, 안나회 : 7일 오전10시. 6. 여성분과회 : 9일 오전10시. 7. 꾸리아 : 10일 오후2시. 8. 오열회 : 10일 공식미사 후. 9. 청년회 : 10일 저녁미사 후.

* 성지가지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 합동미사에 물을 사무실에 미리 접수바랍니다.

성당 청소 : 9일 화목의 거울Pr, 셋별Pr.
금주 전례 : 해설-최옥남 독서-봉헌-정동민 씨 부부
차주 전례 : 해설-오교성 독서-봉헌-육경수 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509,130원 □ 교무금 : 788,53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 종 석

* 제대초 봉헌 하세요.

1. 구정합동 위령미사 : 미사예를 접수하세요. 2. 꾸리아 : 공식미사 후. 3. 교무금 납부의 날 : 매월 첫주(오늘). 4. 제대꽃 : 이 소녀-1구좌. 5. 금주 전례 : 해설-김영선 독서① 문영호 ② 송정자 봉헌-양미란, 김봉길 씨 부부
차주 전례 : 해설-유미란 독서① 이옥동 ② 김순이
봉헌-강문숙, 김단오 씨 부부

6. 청년회 임원개편 : 회장-박시도 부회장-김준호, 김경숙 총무-최인익 서기-양명숙. 7. 학생회 임원개편 : 회장-김정민 부회장-김현진 총무-양미영 서기-안민영. 8. M. E 교육 : 8월-10월 양대환·전옥진 부부, 이정진·강영숙 부부, 박동철·송봉덕 부부, 신부님. 성물(도자기) 판매 : 많은 힘조 바랍니다

10. 신부님 M. E 교육관계로 금·토 미사없고 주일미사는 공식미사만 있습니다. □ 2차헌금 : 118,030원
□ 지난주 봉헌금 : 230,120원 □ 교무금 : 153,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오늘은 연중 제4주일!

1. 회의 : ① 사목회-2월6일(수) 저녁미사 후 ② 자모회-2월5일(화) 오전10시30분 ③ 반장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반장님 전원 참석바람).

* 각 가정의 성지가지를 사무실에 가져다 주세요.

2. 알림 : ① 초축성-오늘 공식미사 중, 91년도 제대초 및 가정초 축성합니다. ② 구정합동위령미사 예를 : 선영을 위한 마음, 많은 접수바랍니다. ③ 91년도 중·고교리교사 봉계연수회-2월8일~10일(2박3일) 평택직접사 연수원. ④ 교무금-91년도 교무금 수입하기 바람에 전년도본 완납바람. ⑤ 성당내 모든 물건은 내물전처럼 아껴주세요, 부탁합니다. ⑥ 2월10일(일)-본당청년들을 위한 1일피정이 있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오전9시부터 시작하여 오후7시에 파견미사.

□ 지난주 봉헌금 : 576,650원 □ 교무금 : 473,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1. M. B. W 대화과정 : 2월25일~27일(2박3일) 천호피정의 집-사무실에 신청.
2. 구정 합동 위령미사 : 사무실에 신청.
3. 초·중등부 교리교사 봉사자를 급히 찾습니다.
4. 청소봉사 : 주중3단지 동편.
□ 지난주 봉헌금 : 420,830원 □ 교무금 : 679,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강 명 구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 득 수

- * 성전보수헌금 바람. * 교무금 수입바람. 1. 성체감동 및 조배 : 7일(목) 오전10시. 2. 병자방문 : 8월. 3. 구정봉사자 모임 : 오늘 저녁7시. 4. 반기도회 : 5일~8일, 반미사 : 5일-전동3반, 6일-동남5반, 7일-동교2반, 8일-동남2반. 5. 자모회 : 다음 주 오전10시. 6. 사목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7. 1미사1지향 : 2월부터 실시. 8. 주일은 "차안하고 오기". 9. 주의 봉헌 축일(2월2일) : 전신자 초봉헌 하세요. 10. 세신부님 환영식 : 공식미사 후-강명구 신부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 금주보수비 헌금액 : 1,007,000원 * 현재모금총액 : 186,149,704원
□ 현재신입금액 : 242,519,618원
□ 지난주 봉헌금 : 1,500,8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 광 탁

- * 박병준 신부님, 권미리데사 수녀님, 구말가리다 수녀님 영육간에 건강을 빕니다. * 이재후 신부님, 장오셀 수녀님, 이아네스 수녀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식-공식미사 후. * 구정합동위령미사 예를 접수 : 13일(수)까지, 접수-사무실. * 성지가지 회수 : 각가정에 있는 성지가지를 10일(일)까지 가져오세요. * 성전신축을 위한 매주일 미사시 2차헌금을 있습니다. 1. 구역(반)장 월례회 : 공식미사 후. 2. 자모회 : 5일(화) 오전10시30분. 3. 성심회 : 6일(수) 오후2시. 4. 제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여성 제33차 꾸르실로 수료 : 탁리디아, 은마리아. 6. 축! 혼인 : 3일(일) 오후1시, 신

랑-이종두, 신부-김준례(소화테데사). 7. 금주 전례 : 장상근 목사-이봉원, 이원재 봉헌-심상기 부부. 차주 전례 : 심상기 목사-서영삼, 최 순 봉헌-서기원 부부. □ 신축헌금 : 370,000원 총계 : 2,585,000원

□ 지난주 봉헌금 : 591,930원 □ 교무금 : 446,000원 □ 2차헌금 : 249,39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 영 균

1. 사목회 : 공식미사 후.
2. 자모회 : 공식미사 후.
3. 성모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초등부 교사 정기총회 : 2월8일(금) 오후3시(성당)-뜻이 있는 분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5. 초등부 졸업식 : 2월9일(토) 어린이 미사 후.
6. 성지가지를 다음주일까지 사무실에 내어 주십시오.
금주 전례 : 김용부 독서·봉헌-김경자, 양노섭
차주 전례 : 장병순 독서·봉헌-김현숙, 정효석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 종 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 수 현
사목회장 황 수 석

1. 환영합니다 : 이수현(라우렌시오) 보좌신부님 부임. 환영식 : 오늘 11시 미사 후. 2. 제대초, 가정초 축성 및 봉헌예절 : 오늘 4대 미사중에(초대 1,000원). 3. 사목회임원 연수회 : 오늘 11시~오후5시30분(교육관). 4. (제외수요일 제외예식을 위한) 성지가지 가져오세요(2월10일까지). 5. 구정합동미사 예를 : 사무실에 접수바람(미사 ① 06시 ② 10시). 6. 모임안내 : ① 안나회-오늘11시 미사후(사무실 옆) ② 구역봉사자 모임-2월6일(수) 오전10시(교육관) ③ 까리따스 8월(금) 오후3시 ④ 울드레아. 7. 꾸르실리스타 이현숙(요안나) : 축하합니다. 8. 금주 청소담당 구역 : 횡동, 온성, 쌍용아파트 동서편. 9. 사순절 신학생 후원을 위한 폐지저금과 및 성미운동. * 91년도 교무금을 속히 수입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945,240원 □ 교무금 : 1,575,000원
신 열세자 사진 : 수녀님께 찾아 가십시오.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 창 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 훈 두

1. 사목회 : 저녁미사 후. 2. 꾸리아 : 공식미사 후. 3. 제대회 : 4일(월) 10:00. 4. 성모회, 자모회 : 8일(금) 어머니미사 후. 5. 금소미사 : 8일(금) 2:00-목배, 7:30-이서. 6. 은혜의 발 기도회 : 8일(금) 오후10:00~4:30 초창강사-김발다살(성심기도원). 7. 성지가지 성당으로 반납하여 주시요. 8. 주민동 육동본 1봉책 사무실에 접수하여 주세요. 9. 꾸르실로 스타탄 생 : 이정윤(올리야), 이병희(해나).

차주전례 : 울드레아, 신축헌금 총수입액 : 65,650,000원 지난주 봉헌액 : 935,000원

- 금주 전례 : 해설-임창수 독서① 유병환 ② 김성자 기도-이종삼, 박선희
차주 전례 : 해설-박명래 독서① 임병용 ② 이혜숙 기도-김정주, 천숙자
□ 지난주 봉헌금 : 798,500원 □ 교무금 : 1,741,000원

자이로로 극사적 유물이 넘쳐서 남아 있어 옛 일을 추모하게 한다. 병인박해시 전라도 교우뿐 아니라 팔도의 피난 교우들이 모여 와서 여기저기 교우촌을 이룩하게 된 본당이며 험악한 산악지대지만 인심이 순박하고 경치가 좋은 고장이다.

이 고장에 본당 설립의 동기는 경남 함양 본당 이상화 신부와 그 당시 어은동 본당의 김양홍 신부가 이 두 본당의 인접지인 무주, 남원, 임실 등의 전교상 쉬어가는 중간 지점인 장수면 수분리에 강당과 사제관을 건립한 데서 시작했다 한다. 그러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사제 부족으로 교회 설립은 지연된 채 함양 본당에서 이 지방을 포용했다가 1926년에서야 장수(구 명칭) 본당의 정식 발족을 맞게 되었다. 그후

‘소화학원’을 설립, 문맹 퇴치에 기여하였고 주임신부의 공석, 장수 읍내로 본당 이전, 1946년 다시 수분리로 본당을 이전하였고, 6·25동란을 맞아 조상의 주임신부의 군중 입대 관계로 남원과 전안 본당 소속이 되기도 했다. 1953년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대지와 가옥 매입, 1954년 성당을 지어 장계 성당이라고 성당명을 바꾸었다.

그후 군소재지인 장수리에 1977년 7월 9일 장수 본당을 창설 분리하여 유서깊은 옛 이름 장수 본당을 승계하였다.

속담에 장수 지대는 울며 잤다 울며 온다는 말이 있다. 너무 험악한 산악지대여서 고생스러워 울며 가다가 순박하고 온화한 인

본당이다.

“**병인박해시 팔도의
피난 교우들이 모여 와서
이룩하게 된 본당**”



6. 파티마의 성모 푸른군대 피정: 2월 7일(목) 10시~16시
덕진성당 미사도구, 목주, 도시락 지참.

7. 노동자의 집 축성식: 2월 10일 오후 2시 오룡동성당

- **성소모임** 성바오로딸수도회: 오늘 오후2시 성바오로 서원 2층 (0652) 252-3398.
보혈선교수녀회: 2월9일 오후5시~10일 오후 3시 본원, 회비-5,000원 (0431) 60-1638.
인보성체회: 2월 10일 오후1시 본원 84-3231.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창조 질서 보전-(1) 생명체 사랑

보기 좋고 아름다운 생명체들뿐만 아니라 지렁이, 땅강아지, 굼벵이도 모두 하느님이 만드신 생명입니다. 늘 모든 생명들을 존중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활로 돌아갑시다.

사무실 임대

임대 장소: 전주 가톨릭센터 건물 내
사무실 규모: 1층 118-2호 6평
118-3호 6평
2층 219호 6평
221호 12평
연락처: 가톨릭센터 85-0041

오성 에어로빅

유연화(안젤라)
김택천(비오로)
☎ 72-3709.77-0310
(호반촌 도지사 관사 뒤
유토피아 맨션 앞)

관은하 컴퓨터 학원

교육 상담 ☎ 855-6966
이리시 동부시장
마들리파트 입구
원장 김 정 순(요안나)

大入 종합반

개강: 2월 12일(화)

장학생 선발고사: 2월6일

현재 상담 접수중

대입 전문 한샘학원

전주 74-7424, 85-7424 시청앞 동방생명앞

맥주의 참맛을 즐기십시오. 카 이저 호프

오재천(안드레아)
정봉교(마카엘라)
*아라바이트생 모집(신자 환영)
☎ 85-8801
(한성여과 사거리)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여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본과·연구과·피부미용과
※농어촌 국비생, 생활보호 대상자,
비전학생 남녀 14세 이상
·연령 학력 제한없음
·6개월(무료 교육) 수료시 취업준비금
50,000원 별도 지급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3-2496, 2-8653

우리전두

모범업소(조리사의 집)
박성환(조기리아)·김명숙(엘리사벳)
전주시 사노동 632-11(중앙성당 앞)
☎ 85-8848

개원슬기주속산학원

모집:유치부·국교부·중등부
※속산 및 응용 계산, 산수 지도
※1급 정교사 원장 직강
위치:종남아파트 앞(동북APT 옆)
교육상담 ☎ 252-0294

이 비오로(태규)

관주선 미술 학원

미술교육 전공자 및
유아교육 전공자 본당 지도
정규반 원아 모집·국교반(수시 모집)
교육상담 ☎ 858-1698
성령을 향유아파트 앞 은메디칼 2층
이리시 주현동 116-1
원장 김주선(말가리다)

이전 개업 데레사 종합화장품

송희꽃꽃이 전주지부장
꽃꽃이 회원 수시 모집
서 데레사(순옥)
☎ 83-5319
장소:구 성모병원

남녀 직원 채용
학력 무관 우대함

군산 태광약국

☎ 445-1800

안에 있는 것을 남을 향해 내기 온 것에 불과하다. 온전히 안에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면 그 깊고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끄집어낼 수가 없었다. 스스로 안고 살고 있는 부끄럽고 추한 자신의 모습을 마치 남의 모습인 양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남에게 뒤집어 씌워 실컷 욕하고 비웃고 단죄하고 있었던 것이다.

3. 공범자로 만들어야 속이 후련한가?

그렇다. 모든 문제는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음으로 생겨난 것이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신을 자신이 용서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진대 어떻게 남들의 인정과 용서를 기대할 수 있으랴?' 하고 고민해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고 인정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을 것 같다. 남은 용서하면서도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에는 혼자 죄인이기에 너무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이 사람 저 사람 단죄하여 자신과 똑같은 죄인의 부류에 집어 넣음으로 마음의 여유를 얻고자 한다. 자신을 비롯한 세상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속이 후련해지는 것이다.

려는 것이다"(요한 3,16-17). 하느님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 당신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이다. 하느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느님이 날 용서하신 것이다. 하느님이 날 단죄하시지 않을진대 누가 날 단죄한단 말인가? 난 이제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아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제 생활도 달라져야 한다. 죄인으로서의 삶이 아닌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삶으로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이제 애써 남을 단죄하므로 마음의 위로를 삼으려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기에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5. 사순절이 다가온다.

은혜의 시기 사순절이 온다. 우리를 사랑했기에 겪어야 했던 나자렛 예수의 고통을 묵상하며 하느님의 사랑에 몸을 맡겨 하는 시기이다. 죄없이 죽어간 예수의 아픔에 최고로 보답하는 길은 그 님의 사랑을 몸과 마음으로 알아듣는 것이리라. 그리하여 자신은 물론 그 어느 누구도 단죄하지 않아도 평화로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 사순절에 알아들 전례 상식

사제의 제의는 보라색(자색)으로 바뀌고 '알렐루야'와 '대영광송'은 하지 않으며 수난의 길을 묵상하는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

숲정이 산책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

태화신발백화점

신사화·숙녀화 } 총판매장(공정직영)
아동화·특수화

김 문 식 (베드로)

☎ 82-3118

동남문, 효곡, 송악로 사거리

축/개업

진선미 웨딩드레스

가장 우아하고 세련된 웨딩드레스

맞춤 판매 대여 부케

폐회 의상 연주복 신부화장

이리시 모화예술장 앞

☎ 52-1187

정기연 (치올로), 황인덕 (마리나)

초·중·고등부·개인지도식 교육

유치부 한글 터득 및 속셈 숫자 지도

관영재속셈학원

장 재 식 (베드로)

원 숙 영 (가타리나)

우이동 우진APT 입구 백미역로2층

☎ 76-1300

여성Agent 모집

인원: 10명

자격: 25~43세대줄 및 전문대졸

고졸은 직장 경력자

대우: 1차 월 20만원] + 각종수당

2~6차 월 30만원

업체 최고의 대우

• 2차녀 학자금 (50~90%) 중·고·대

특전: 해외 연수 기회 부여

개인별 전화 및 파티션 제공

팀장 및 소장 승진

주 5일 근무 (9:30~16:00)

전형: 서류 및 면접

서류: 이력서 1매 사진 4매

주민등록등본 1매

기간: 1991년 2월 9일

동부애트나 전주영업소

전주시 덕진구 진북 1동 368-1

☎ 253-6401~7

소장 최 춘 식 (프란치스코)

홍부의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홍부보쌈

오 재 천 (안드레아)

정 봉 교 (마카렐라)

효자동 우진아파트 앞

☎ 223-0297~8

새로운 노래를 찾습니다

성바오로 미디어에서는 보다 아름답고 생생한 노래로 삶의 기쁨과 평화, 고통까지도 하느님께 찬미드릴 수 있는 새로운 성가곡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고자 합니다. 많은 응모바랍니다.

응 모 바 랐 습 니 다

1. 청소년들과 어른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창작 성가곡(편수 제한없음)

2. 어린이들을 위한 성가와 소창곡(편수 제한없음)

3. 신성된 곡은 소정의 작품료를 드리며 음반과 노래책으로 만들어집니다.

4. 응모된 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접수 마감일: 1991년 3월 30일

• 보내실 곳: 132-104 서울 도봉구

미아 4동 103 성바오로딸 수도회

성바오로 미디어 성가 공모곡

담당 수녀

☎ 984-1611. FAX. 984-3612

교사 초빙

1. 구비 서류: 이력서 1통, 경력자 우대

2. 제출 기간: 2월 28일까지

* 유치부 7세 원아모집 선착순 10명

세계 웅변 학원

암골 주택은행 앞

☎ 88-5044, 88-0530

신부 부케 전문점

진 선 미 꽃 집

이 마리아

범 디도

☎ 84-2628

라모드의상실

고시동 명보회관 사거리

라 경 섭 (안셀모)

오 정 애 (젠 마)

☎ 88-8620

피와 살과 생명을 서로 나누고 바치는 사랑의 생
활을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보여주신 악령의 축출은 이런
팩트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
자신이 초월적인 분이심을 믿게 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만이 아닌 하느님 나라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었다. 백성들의 처절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의 아픔과 함께 일으킨 기적이
었습니다. 그분은 악령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고, 이를 통해
백성들은 하느님의 통치를 염원하고 반드시 그날은
오고야 말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느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비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악령을 쫓아내셨듯이 나누지 않고 차지
하려는 우리의 욕심, 남들 위에 서려는 우월감,
하느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착각하는 악령을 각자
자신 안에서 버려야 합니다. 나아가 극심한 빈부의
격차, 퇴폐문화의 범람, 극심한 경쟁, 집단적 이
기주의 등 모두가 정신병을 앓게 하는 이 사회의
구조악과 폭력적 악법으로 인위적인 권위를 만들고
백성 위에 군림하려는 악령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군림하는 권위가 아닌

봉사로서 섬기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권위를 보여주셨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고
이 세상에 하느님의 나라를 알리고 실현시켜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아픔을 함께하면서 각자의 삶과 피와
생명을 나누라는 예수의 권위있는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구인 적산에 미사예배에 관한 새규정을 세웠다. 영세
후 미사예배는 사제가 전적으로 소유해야 할 일의 댓가라는 것이
내게는 복채와 비슷하게만 느껴져서 한동안 혼란했던 적이 있다.
미사지향으로 보통 소개되는 것들은 연옥영혼의 구원, 낙태된
아기의 구원, 건강, 사업 성공, 시험 합격 등인데, 복을 비는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다. 신앙은 복을 비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에게 잘해주라고
성서는 거듭 강조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정의보다는 사랑이
더 귀하고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우리는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재고 그 기준에 어긋나면 울분을 참지 못하지만
그런 우리 마음에는 자기 욕망을 못 채워서 앙양불락하는 죄악의
뿌리가 커나가고 있을 수도 있다.

사람들이 현금권에 돈을 넣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던 예수께서
한 과부가 단돈 두 닢을 넣는 것을 보시고 감탄하시는 이야기가
성서에 나온다. 그 여인의 마음에 자리한 하느님 나라가 내 마
음에도 내렸으면 좋겠다. 신앙은 이성으로 커간다고 해도 그
이성이 시시콜콜 따지는 그런 것은 아닐 듯싶다. 나는 사랑을
진실하게 실천해오진 못했다고 양심으로부터 느낀다. 가장 큰
죄는 내 이기심인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일치를 깨뜨리게
한다. 나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빛의 사람'이 되어 살고 싶다.
내 재물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위탁
받은 것이니만큼 자꾸만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 믿
는다.

돈이 보낸 편지

당신은 언제나 나를 움켜쥐고는 나를 당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당신이 나의 것이지요.

나는 사람들에게 있어 무한히 값지며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물이 없으면 한 포기의 풀도 살 수 없듯이 내가 없으면 사람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돕는 선한 사
람들, 한자들의 고통을 줄이려는 이들과도 만납니다.

나의 힘은 사실 무한하답니다. 부디 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현명하게
나를 다루십시오.

- 당신의 돈 울림 -

